

## 가금산물 품질 향상에 관심 집중



▲ 세계가금학회 본 회의장



**강근호**

농촌진흥청 축산과학원 가금과 농업연구사  
이학박사

세계가금학회는 세계가금과학협회에서 주최하여 전 세계 가금학자들이 한 곳에 모여서 개최되는 행사로 지난 1921년 헤이그에서 처음 개최된 이래 매 4년마다 정기적으로 개최되고 있다. 또한 세계가금학회는 학술적인 발표뿐만 아니라 산업체 및 농장경영인들이 모두 모여서 개최되는 행사로 산업체와 더불어 가금산업의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타학회와 차별화되고 있다.

금번 호주 브리즈번에서 개최된 제23차 세계가금학회는 세계 가금산업의 전망, 웰빙을 접목한 계란산업, 계란성분을 이용한 현재까지의 기술, 복제 병아리의 개발진행 사항, 가금질병의 동향, 가금생산물의 안전성 및 가금산업에 있어서 생명공학기술의 접목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심도 있는 토의로 구성되었다.

세계인들의 관심사인 동물복지,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인한 곡물가 상승에 대한 대안을 위해 동물복지를 고려한 산란계 사육방법, 가금육 생산과 품질을 고려한 유전육종의 선택법, 부산물을 이용한 새로운 대체사료 탐색, 사료내 영양성분을 강화시키는 기술, 가금산물의 이윤을 증대시키기 위한 기술, 향후 가금육의 가공방법 및 안전성과 품질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토의가 진행되었다.

**금번 호주에서 개최된 세계가금학회의 주요 발표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가. 본회의 주제발표**

- 1) 세계 가금산업의 전망 : 현재와 미래
  - 동물복지와 환경
  - 조류인플루엔자
  - 현대 상업용 가금의 유전특성
  - 향후 가금영양학의 전망
  - 한계를 넘어
  - 21세기 가금산업
- 2) 토착화된 가금의 중요성
- 3) 가금산물의 안전 생산 : 최근 기술동향
- 4) 복제 닭 개발기술의 동향
- 5) 다문화 세계에 세계적인 상표 개발 : 식육 산업을 위한 영원한 도전
- 6) 미래에 먹는 사람들
- 7) 가금질병 통제에의 과거, 현재 및 미래
- 8) 계란성분을 이용한 최근 기술동향
- 9) 가금산업에 있어서 생명공학기술의 도입
- 10) 세계축산산업에 있어서 중국의 영향

**나. 전공분야별 구두발표**

전공분야	발표수
동물복지 및 환경	54
영양 및 사료가공	58
가공 · 생산 안전	58
경제, 마케팅, 교육 및 기타	48
유전 육종	48
기타 품종과 사육시스템	55
생리학 및 내분비학	51
개발도상국가들의 가금생산	39
신진가금학자 발표	8
제6차아시아-태평양가금위생학술회의	69
합 계	488

**다. 전공분야별 포스터발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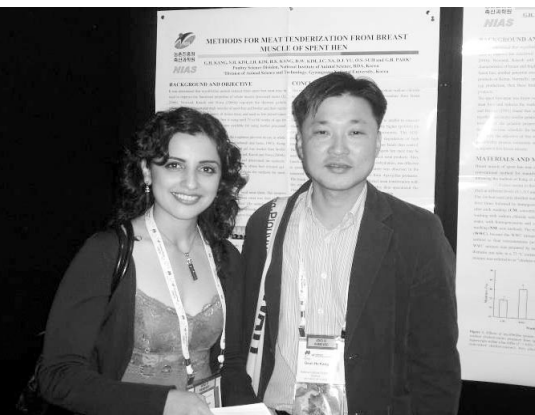
전공분야	발표수
동물복지 및 환경	48
영양 및 사료가공	221
가공 · 생산 안전	64
경제, 마케팅, 교육 및 기타	15
유전 육종	65
기타 품종과 사육시스템	45
생리학 및 내분비학	35
개발도상국가들의 가금생산	6
제6차아시아-태평양가금위생과 보건	83
합 계	582

금번 제23차 세계가금학회 학술발표회(XXⅢ Worlds Poultry Congress 2008)에서는 10개의 주제발표에 대해 3천여명 이상의 전 세계 가금분야 사람들이 모여서 열띤 토론과 함께 개최되었다. 또한 학술발표회에 있어서는 10개의 세부전공으로 나누어 구두발표(488편)와 포스터발표(582편)가 있었으며, 8명의 신진가금학자들의 발표회가 있었다. 세부전공으로는 동물복지 및 환경, 영양 및 사료가공, 가공 · 생산 안전, 경제 · 마케팅 · 교육, 유전육종, 기타품종과 사육시스템, 생리학 및 내분비학, 개발도상국가들의 가금생산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한편, 23차 세계가금학회와 함께 제6차 아시아-태평양가금위생학술회의도 함께 개최되어 구두발표(69편)와 포스터발표(83편)가 있었다.

또한, 세계가금학회는 학술적인 행사뿐만 아니라 가금박람회 행사도 더불어 개최되었는데, 이는 가금산업의 문제점과 발전방안을 학문적으로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요구하는 수요자 중심으로 해결한다는 점에서 타학회와 차별화된 행사였다. 전 세계 가금분야 종사자 3천여명이 학술행사 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 학회등록 창구 앞에서



▲ 포스터 발표 전시장에서



▲ 세계가금박람회장에 전시된 포장란

요구되는 기기 개발의 목적과 개선점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토의가 있었다.

### 생산성 향상과 난각품질은 전 세계 가금인들의 변함없는 관심사

금번 세계가금학회에 참석하여 느꼈던 점은 시대가 흐르고, 소비자들의 환경복지에 관한 관심이 증대하더라도 전 세계가금분야 사람들의 공통적인 생각은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영양 및 사료가공 분야가 단연 으뜸이라는 사실이다. 이러한 결과는 본 학회에서 발표된 포스터 발표 수에서도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물론, 가금산업의 발전을 위해 종계생산, 시설·환경, 질병 예방 및 유통 또한 중요하지만, 경제적인 활동이라는 맥락 속에서 전 세계 가금인들은 단연 영양 및 사료가공 분야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필자는 가공분야를 전공하고, 현재 가금산물의 품질향상에 대해 연구를 하고 있어서 이 분야에 대해서 느낀 점을 소개하고자 한다. 전 세계 가금인들의 주된 관심사는 가금산업의 분야별에 대한 순위 보다는 식량공급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소고기, 돼지고기 및 기타 육류에 비해 가금산물의 비중에 대해 어떻게 하면 시장점유율을 높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고민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단적인 예로 가금산업의 발전을 위해 글로벌 브랜드 개발로써 가금산물의 공급을 지속적으로 늘리자는 것이 전 세계 가금인들의 한결 같은 목소리였다. 또한, 가금산물의 품질향상을 위해 항생제대체물질 개발, 도계 단계에서 살모넬라 제어방법 및 수송 중 육질저해요인 제거 등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었다.

한편, 전 세계 가금인들은 산란계산업에 있어서 계란품질에 있어서 난각품질 개선을 으뜸으로 꼽고 있었다. 신선도와 같은 계란내부품질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고려되고 있는 사항은 최종 소비자에게 고품질의 계란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난각강도를 개선시키자는 것이었다. 이러한 방안에 대해 가금생리, 유전 육종, 품종, 스트레스 및 사육환경 등에 걸쳐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었다.

끝으로, 금번 호주에서 개최된 제23차 세계가금학회는 한국가금학회에 해외학술지원 펀드를 지원해주신 분들의 일부지원이 있었기에 지면을 빌어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양계**